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281
----------	------

제안연월일 : 2012. 10. 25.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주 문

한글은 문자사에 유래가 없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로 한글 창제는 민족사의 위업이며, 민족문화 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1990년 경제적 논리로 공휴일에서 제외하였고, 2005년 국경일로 격상하였지만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하여 국민들이 한글의 가치를 깨닫고 한글날 제정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글 창제·반포일이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한글의 민족적, 문화적 가치를 국민이 기리고 높여 기념할 수 있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한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 천개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 창제일자, 창제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가장 과학적인 표기체계로서 국가 경쟁력의 속도를 좌우하는 정보화 진화도에 있어 가장 우수한 문자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한글의 창제원리를 담은 훈민정음을 전 인류가 공유 및 보존해야 할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세계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한류를 통해 한글에 대한 관심과 교육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한글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온 국민이 한글의 창제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